

MZ 세대 신병정신전력 교육방법별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임종원
육군 교육사령부

A Study on the Effect Analysis of MZ Generation Recruiter's Mental Power by Education Method

Jong-Won Lim
ROK Army Training & Doctrine Command, Korea

요약 최근 군에서는 입대하는 MZ 세대 신병들에 대한 정신교육 접근방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MZ 신병들을 대상으로 집중교육과 분산교육 2가지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정신전력 교육방법 개선과 교육효과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MZ 세대 신병들의 특징들을 관련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집중교육과 분산교육을 진행한 두 그룹을 설정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전문가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은 AHP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방법 측면에서의 효과를 측정하였고, 교육효과 분석은 ANOVA 및 T-검정 방법을 활용하여 두 집단에 대해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는 집중교육보다 분산교육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종적으로 효과적인 MZ 세대 신병 정신전력 교육방법 개선안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추후 연구로 다양한 기준(학력, 시험결과, 집단성격 등)을 적용한 신병 정신전력교육 효과에 대한 측정을 진행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military is conducting research on approaches for mental education of new recruits of the MZ generation. In this study, improvement of mental power education methods and the analysis of educational effects on the MZ generation members who recently enlisted in military service were measured using the two methods of intensive education and distributed education.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MZ generation recruits were analyzed, and a study related to the recruit's mental power was conducted. In addition,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 program of the two groups that experienced intensive education and distributed education were identified, and questionnaires were constructed. Analysis results found that distributed education was more effective than intensive education. Finally,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effect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AHP analysis method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method improvement plans, and effect analysis was measured by using ANOVA and T-test methods to analyze the educational effects of each method. In future studies, we intend to measure the effects of new recruits' mental education by applying various criteria (educational background, test results, and groups personality).

Keywords : MZ Generation, Recruit Mental Power, Intensive Education, Distributed Education, Education Effect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Jong-Won Lim(ROK Army Training & Doctrine Command)

email: sury20104406@gmail.com

Received February 28, 2022

Revised March 31, 2022

Accepted May 6, 2022

Published May 31, 2022

1. 서론

현재 20~30대의 젊은 세대들을 'MZ' 세대라고 칭한다. MZ 세대의 사전적 의미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면서 아날로그를 경험한 밀레니엄(M) 세대와 Z세대를 아우른다. 이들 MZ 세대들의 특징들은 인스타그램 / 유튜브 / 틱톡 등의 SNS에 익숙하지만 아날로그적인 소품과 경험들을 선호하는 성향을 보이며, 기존 세대와는 달리 미래를 위해 돈을 저축하기보다는 주식 및 가상화폐 등의 공격적인 재테크를 시도하고 본인들의 취향과 관심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성향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MZ 세대는 기존 X, Y, Z 세대와는 상이한 특징들로 인해 이들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MZ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기존 세대와의 연결을 위해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뿐만 아니라 군에 입대하는 MZ 세대들의 특징을 고려한 교육 훈련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훈련 및 교육방법, 복지 개선 등 군의 변화가 없다면, 많은 문제점들이 부각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1,2].

기성세대와 달리 이들 MZ 세대들은 세계화와 다문화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자긍심, 애국심,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약화된 경향을 드러낼 수 있다. 한편으로 MZ 세대 장병들은 가치관 형성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시절에 부정적 대북 인식과 관련된 여러 환경적 자극을 접하며 성장해 왔다. 부정적 대북 인식과 긍정적 대북 인식 모두 접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북핵·미사일 실험, 서해 도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연평도 포격, 목함 지뢰 도발 등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 도발을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면서 자라온 세대이다. 이러한 도발 외에도 북한 이탈주민, 남북한의 정치, 경제적 격차로 인해 통일에 대한 부담감 및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3].

군도 이러한 MZ 세대의 신병들이 계속해서 입대하게 되면서, 정신전력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MZ 세대 장병들이 입대 후 처음 접하게 되는 신병 정신전력 교육방법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방법별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육군에서는 신병교육훈련 발전에 관해 교육방법 개선 및 효과적인 적용방안에 토의 및 연구가 진행중에 있으며, 관련 규정과 현 교육방법인 집중 교육 방법에 대한 효과성 관련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

다. 교육시간은 육군 규정에 명시되어 있듯이 26시간으로 유지하며, 교육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교육방법 변화 및 과제편성의 조정 등 정신전력의 지속성 유지 측면에서 분산교육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주차 신병 정신교육에 대해 집중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집단과 1주차 ~ 5주차 분산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집단 간 교육효과를 분석하며, 교육방법 및 교육효과 측면에서 개선안이 도출되면 향후 군의 신병 정신전력 교육 간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5].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 통계적 연구방법 설계 모형 제시, 설문대상 및 설문문항 구성, 설문 통계 분석, 분석결과 제시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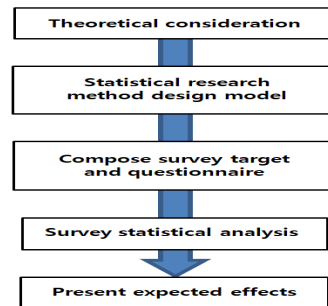


Fig. 1. Structure of research procedure

2. 이론적 고찰

2.1 신병 정신전력교육 관련 선행연구

김미량(2014)은 군(軍) 매체인 국방일보와 국군 방송을 활용한 정신교육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저자는 신세대 장병들을 물질적 풍요를 기반으로 안보 상황에 둔감한 환경에서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정의하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특징들은 일인 자녀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며, 다양한 대중매체 및 문화의 영향으로 감각적이고 탈이념적이며, 전통적인 권위에 부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특징들이 있다. 이와 반대로 신세대 장병들은 인터넷, 스마트폰 등 디지털 도구들과 더불어 성장하였기 때문에 정보처리 능력이 우수하며, 영상매체와 게임에 매우 익숙한 특징들이 있다고 분석하였다[4].

이인정(2017)은 세대 특성에 기초한 군 정신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저자는 젊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의 방향을 자기 주도적이고 참여 의식을 고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군 정신교육에 있어서 대화 공동체, 탐구 공동체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대화 공동체를 통한 군 정신교육 방법으로 '대화 학습'을 통한 소그룹 정신교육, '하브루타(Havruta)' 방식을 활용한 대화 공동체 형성, '비폭력 대화'를 통한 정신교육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탐구공동체를 통한 군 정신교육으로는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실천적 내러티브', '학습동아리' 방식을 통해 세대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군 정신교육 방안 대해 제안하였다[5].

김현배(2018)는 보고에서 장병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교육과 영상시청만으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정신교육에 접목한 방법과 정신교육 콘텐츠를 IPTV 또는 모바일을 활용한 방법들에 대해 제안하였다[6].

박재필(2017)은 SNS 시대 군 정신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19세기 프로이센의 클라우제비츠(Calusewitz, 1780~1831)의 저서인 '전쟁론'에서 "물질력은 목재 손잡이에 불과하지만 정신적 원인과 결과는 연마된 본래의 칼날이다."라는 말로 정신전력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정신전력의 중요성은 물질문명이 발달된 현재에도 변함없이 강조되고 중요시되는 부분이다. 특히, 군에서의 정신전력은 전투력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변화되는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 다양한 환경요소 등의 변화 속에서 특히, SNS시대의 군 정신교육 발전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에 대한 군 구성원 소통 강화와 군 구성원 자존감 제고에 초점을 두고 정신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7].

임상욱(2017)은 가상현실 기반 군 정신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에서,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인공지능, 5G, AI, 로봇기술 등의 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들로 실재(實在)와 가상의 공간이 통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상현실(VR : Virtual Reality)을 활용하여 정신교육 분야중 '체험형 정신교육' 분야의 학습 모델을 제시하였다[8].

김진만(2017)은 레빈(Kurt Lewin)의 장이론으로 조명한 정신전력의 구조화 모형에 관한 연구에서, 레빈의 장이론을 적용하여 정신전력을 형성시키고 작용하도록 만드는 메커니즘과 원리에 관해 분석하고 구조화한 후 정신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지향해야 할 개발 모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벡터심리학 이론을 도입하여 인

간의 심리도 방향을 가진 힘의 벡터로 표현이 가능한 것을 보여줬으며, 정적 유인가 모형을 통해 그 동안의 정신전력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정신전력 강화 방안 개발을 위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9]. 기존 선행연구들은 신병들에 대한 다양한 이론 및 교육방법 적용 측면에서 연구를 주로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규정상 정해져있는 기존 교육방법인 집중교육 방법과 새로운 방법인 분산교육 측면에서 교육방법별 교육효과를 분석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2.2 신병 정신전력교육 개관

신병 정신전력교육은 육군규정 801 공보정훈업무 규정에서 군인의 가치관을 지닌 '군인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고 정의한다. 신병 정신전력교육은 입대 前 민간인 신분에서 군인 신분으로서의 시작으로 '先 정신무장, 後 전투기술 숙달' 개념하에 군인의 가치관을 지닌 '군인 만들기'에 중점을 둔다. 신병 정신전력교육은 정규 과목으로 반영하고 과정보별 교육시간은 평가시간을 포함하여 5주 과정은 26시간 이상, 4주 이하 과정은 20시간 이상을 반영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점수는 신병 훈련 간 총 배점의 5% 이상을 반영하며, 평가결과 70% 미만의 불합격자는 별도의 보충 교육을 통해 요망 수준에 도달시키도록 한다. 신병 정신전력교육의 과목편성은 국방부 통제 하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 3가지 주제별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8개 과제, 육군 내적가치 함양 교육 교재의 2개 과제를 1~3 주차에 편성하여 집중교육하고 부득이한 경우, 부대 여건을 고려하여 분산교육을 할 수 있다. 교육방법은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전담교관 및 지원교관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기간중 신병들의 전투의지 함양을 위해서 주요 전투사례 소개, 전투영화 등 영상물 시청, 군가가창, 구호제창, 결의대회, 시각 매개물, 교육용 영상 콘텐츠 및 만화교재 등을 활용하여 수시 교육을 하며, 종합평가는 교육 종료 주차에 필기 평가를 진행하고 종합성적에 반영한다.

2.3 신병 정신전력교육 편성

본 연구에서 적용 할 연구대상 집단은 집중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A 집단과 분산교육을 적용하고 있는 B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육군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병 정신전력교육의 기본안은 집중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년 교육사평관

주관 신병교육훈련 발전 대토론회 時 신병들의 정신전력 수준 지속성 보장을 위해 교육기간 중 정신전력 과제를 주차별로 분산교육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집중교육 방법과 새로이 적용하는 분산 교육방법 중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2.3.1 신병 정신전력 집중교육

A 집단은 '20년 후반부터 신병 정신전력교육을 분산 교육 방법으로 시범 적용하였으나 코로나 19 영향으로 현재는 1 주차에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 육군 핵심가치 과목에 대해 집중교육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PCR 검사로 인해 초빙교육 및 특강은 미 실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A 집단은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기수별 정해진 신병들이 사단 신병교육대에 비해 많은 인원들이 입소함에 따라 교육환경 및 질적 측면에서 다소 열악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A 집단의 신병 정신전력교육 체계도를 분석해보면, 기본 5주 과정 신병들을 대상으로 26시간의 교육시간을 편성하고 있으며, 국가관, 안보관 확립 및 군인정신, 육군 핵심가치 함양의 교육 중점을 두고 있다. 요망수준은 자유민주주의 이념 및 국가 수호의지 제고, 포괄적 안보위협 인식 및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 군 조직 특성 이해 및 투철한 군인정신 함양, 육군 핵심가치 함양을 통한 육군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습득 하는데 있다.

2.3.2 신병 정신전력 분산교육

B 집단은 MZ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신병 교육훈련 체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지휘관 중심 하 신병 교육훈련 체계 개선을 위한 현상 인식으로 첫째, 현역 복무기간이 국방개혁 20 육군 추진계획에 의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최소 숙련기간이 11개월에서 8개월로 축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단기간(6주)에 활용가치가 높은 병(兵) 양성교육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현 입영 장병들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MZ 세대로서 성향 및 개성이 뚜렷하고 주입식 학교교육,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군 가치 내면화 및 기본자세 확립에 있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 및 야전부대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군 가치 내면화 및 기본자세 확립에 대해 최우선 요구사항에 대해 체계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한 결과 B 집단은 “군인으로서 정체성이 확립된 용사 육성”이라는 목표를 재설정하여 육군의 구성으로서

충성심과 사명감, 자발적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의 필요, 군대와 군인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숙고 및 성찰의 필요성, 신뢰와 공동체 의식으로, 전우를 한 사람의 시민이자 동등한 인격체로의 인식이 중요함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신병 정신전력교육 시간을 기존 26시간에서 34시간으로 증강 편성하였으며, 군성교육 등 내적가치 확립에 대한 교육 시간을 증대하여 '21년부터 적용중에 있다.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MZ 세대 신병들의 정신전력 교육방법(집중, 분산)별 교육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교관(집중교육과 분산교육 경험이 있는 교관으로 선정)과 신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통계검증 방법을 통하여 신병 정신전력 교육방법별 효과 및 수준 변화를 측정하였다.

3.1 연구대상

신병 정신전력 교육방법별 개선안 효과분석을 위한 전문가 집단은 교육대장, 신교대장, 공보 정훈장교, 중대장 등 32명 대상으로 계층적 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집중교육 및 분산교육별 교육효과를 분석하였다. 교육방법에 따른 신병 정신전력 수준 변화 분석은 1주차 집중교육을 적용한 A 집단은 신병 150명, 1-4주차 분산교육을 적용한 B 집단은 신병 143명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pm 4.5\%$ 수준이다.

3.2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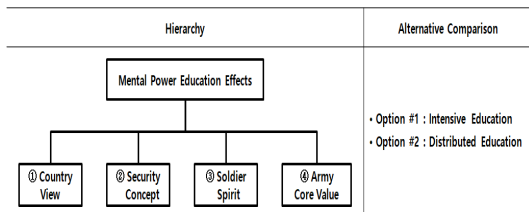
전문가 대상 교육방법별 교육효과 분석은 방안1(집중교육)과 방안2(분산교육)에 대해 각 방안별 교육효과를 측정하였으며, 교육효과 측정을 위한 하부요소로는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 육군 핵심가치 관련 4가지 설문 문항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AHP 분석을 위한 SW는 MakeIt을 활용하였다.

신병 정신전력 수준 변화 분석은 1주차 집중교육을 적용하고 있는 A 집단과 1~5주차 분산교육을 적용하고 있는 B 집단 신병 293명을 대상으로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 육군 핵심가치 4가지 측정요소에 대해 1) 입소 後(정신전력 교육 前) 신병 정신전력 현 수준을 분석, 2) 입소 後 집중교육에 따른 신병 정신전력 수준 변화 분석,

3) 입소 後 분산교육에 따른 신병 정신전력 수준 변화를 분석하여, 교육방법에 따른 신병 정신전력 교육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입소 後와 수료 前에 각각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설문분석 및 설문결과에 대해 분산분석(ANOVA) 및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 및 T-검정을 위한 SW는 SPSS Ver.26을 사용하였다.

3.2.1 전문가 대상 신병 정신전력 교육방법별 효과분석

“계층 1”은 신병 정신전력 교육효과, “계층 2”는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 육군 핵심가치 요소로 구성하였으며, AHP 평가척도는 9점 척도를 적용하였다. 세부 계층 구조 및 쌍대비교안은 Fig. 2와 같다.



Standard Item	Importance									Comparison Item								
① Country View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① Security Concept
② Country View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② Soldier Spirit
③ Country View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③ Army Core Value
④ Security Concep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④ Soldier Spirit
⑤ Security Concep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④ Army Core Value
⑥ Soldier Spiri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④ Army Core Value

Fig. 2. AHP Hierarchy and Pair Comparison

3.2.2 교육방법별 신병 정신전력 수준변화 분석

집중 및 분산교육을 진행하는 부대의 신병을 대상으로 입소 後와 수료 前에 2회에 걸쳐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신병 정신전력 수준변화 분석을 위한 모형은 Fig.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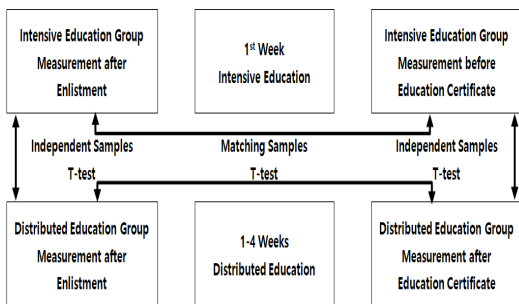


Fig. 3. Recruitment Mental Power Level Change Analysis Model

입소 後 두 비교 집단별 신병들의 정신전력 수준 측정은 분산분석을 통해 입소 당시 現 수준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결측값 및 특이값을 제거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신병 대상 설문지 구성은 해당 분야 연구자료를 토대로 신병 수준에 맞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각 영역당 5문항씩 선택형 질문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설문의 신뢰도 계수는 0.923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설문 영역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Factor Analysis)에는 주축요인추출을 사용하였고 고유값(Eigenvalue)은 1이상의 값을 가지는 요인들만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요인 적재값(Factor Loading)은 0.3 이상인 것을 선택하였으며, 요인회전은 프로맥스(Promax) 회전을 하였다. 요인분석결과,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 육군 핵심가치 4가지 측정요소 모두 표준적합도(KMO:Kiaser-Mayer-Olkin) 검증값은 0.5보다 크며, Barlett 구형성 검증값은 P<0.05으로 연구모형이 적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전문가 대상 신병 정신전력 교육방법별 효과분석 결과

전문가 대상 신병 정신전력 교육방법별 효과 분석결과, 분산교육이 집중교육 대비 2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계층요소별 분석결과 분산교육이 집중교육 대비 국가관 측면에서는 1.7배, 안보관 측면 2배, 군인정신 측면 3.3배, 육군 핵심가치 측면에서는 2배로 분산교육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 결과는 Fig.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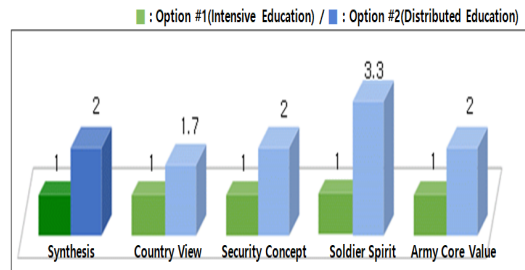


Fig. 4. Effect Analysis of each Method of Recruits by Experts

계층요소별 우선순위는 국가관, 군인정신, 안보관, 육군 핵심가치 순으로 높게 분석되었으며, 분산교육이 집중교육 대비 2배의 교육효과가 있는 이유로는 신병 정신전력 교육의 지속성 유지 측면과 매주 정신전력교육 후 실시하는 전투기술의 숙달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 요소별 가중치 산출결과는 Table 1과 같으며, AHP 설문결과에 대한 일관성비율(CR)값은 0.027로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Table 1. Weight Calculation Result for Each Element

Division	Sum	Country View	Security Concept	Soldier Spirit	Army Core Value
Weight	1	0.462	0.162	0.275	0.101

4.2 신병 정신전력 수준변화 분석결과

신병들이 입소하자마자 정신전력 수준을 분석하고 집중 및 분산교육을 실시 후 퇴소 前의 신병 정신전력 수준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4.2.1 입소 후 신병 정신전력 수준 분석

입소 후 신병 정신전력 수준 분석결과, 정신전력 수준은 분산분석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국가관(94%), 군인정신(86%), 육군 핵심가치(84%), 안보관(79%)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 내용은 Fig.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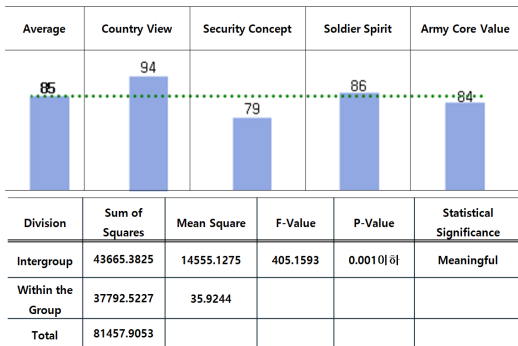


Fig. 5. Analysis Result of Recruit Mental Power Level after Enlistment

분석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결과, 국가관 수준이 가장 높은 이유는 MZ 세대들의 대중매체에 익숙한 이들이 입대 前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가에 대한 이해(국

가의 존재 이유, 가치관 등)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안보관 수준이 가장 낮은 이유는 학창시절 안보관 관련 교육 및 관심부족, 탈냉전 시대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2.2 집중 및 분산교육 방법별 신병 정신전력 수준변화 분석

집중교육 및 분산교육에 따른 신병 정신전력 수준 변화 분석결과, 분산교육이 집중교육 대비 1.5%~4% 높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층요소별 교육효과는 국가관 1.5%, 안보관 4%, 군인정신 3%, 육군 핵심가치 3.5%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세부 결과는 Fig.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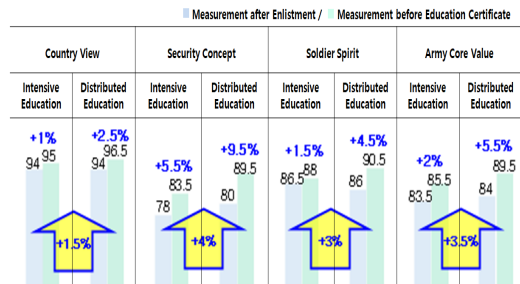


Fig. 6. Analysis Results of Recruit's Mental Power Level Change

각 요소별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중 국가관 수준은 입소 후 집중교육 및 분산교육 집단의 평균은 94로 동일하며,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유의확률(p)이 0.235이고 유의수준(α) 0.05보다 크므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료 前 집중교육 및 분산교육 집단의 평균은 각각 95, 96.5로 평균의 차이가 있으며,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유의확률(p)이 0.001 수준이고 유의수준(α)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집중교육의 입소 후와 수료 前 평균은 94, 95로 평균의 차이가 있으며, 대응표본 t 검정 결과 유의확률(p)이 0.001 수준이고 유의수준(α)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산교육의 경우 입소 후와 수료 前 평균은 94, 96.5로 평균의 차이가 있으며, 대응표본 t 검정 결과 유의확률(p)이 0.001 수준이고 유의수준(α)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2. T-test Result of Country View

Division	After Enlistment	Before Education Certificate	P-value
Intensive	94	95	0.001
Distributed	94	96.5	0.001
P-value	0.235	0.001	-

안보관 수준은 입소 後 집중교육 및 분산교육 집단의 평균은 78, 80으로 상이하나,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유의확률(p)이 0.092 수준이고 유의수준(α) 0.05보다 크므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료 前 집중교육 및 분산교육 집단의 평균은 각각 83.5, 89.5로 평균의 차이가 있으며,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유의확률(p)이 0.001 수준이고 유의수준(α)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집중교육의 입소 後와 수료 前 평균은 94, 95로 평균의 차이가 있으며,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유의확률(p)이 0.001 수준이고 유의수준(α)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산교육의 경우 입소 後와 수료 前 평균은 94, 96.5로 평균의 차이가 있으며,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유의확률(p)이 0.001 수준이고 유의수준(α)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집중교육 대비 분산교육이 신병 정신전력 교육수준 변화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T-test Result of Security Concept

Division	After Enlistment	Before Education Certificate	P-value
Intensive	78	83.5	0.001
Distributed	80	89.5	0.001
P-value	0.092	0.001	-

군인정신 수준은 입소 後 집중교육 및 분산교육 집단의 평균은 86.5, 86으로 상이하나,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유의확률(p)이 0.195 수준이고 유의수준(α) 0.05보다 크므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료 前 집중교육 및 분산교육 집단의 평균은 각각 88, 90.5로 평균의 차이가 있으며,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유의확률(p)이 0.001 수준이고 유의수준(α)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집중교육의 입소 後와 수료 前 평균은 86.5, 88로

평균의 차이가 있으며,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유의확률(p)이 0.001 수준이고 유의수준(α)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산교육의 경우 입소 後와 수료 前 평균은 86, 90.5로 평균의 차이가 있으며,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유의확률(p)이 0.001 수준이고 유의수준(α)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집중교육 대비 분산교육이 신병 정신전력 교육수준 변화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4. T-test Result of Soldier Spirit

Division	After Enlistment	Before Education Certificate	P-value
Intensive	86.5	88	0.001
Distributed	86	90.5	0.001
P-value	0.195	0.001	-

육군 핵심가치 수준은 입소 後 집중교육 및 분산교육 집단의 평균은 83.5, 84로 다소 유사하나,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유의확률(p)이 0.085 수준이고 유의수준(α) 0.05보다 크므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료 前 집중교육 및 분산교육 집단의 평균은 각각 85.5, 89.5로 평균의 차이가 있으며,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유의확률(p)이 0.001 수준이고 유의수준(α)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집중교육의 입소 後와 수료 前 평균은 83.5, 85.5로 평균의 차이가 있으며,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유의확률(p)이 0.001 수준이고 유의수준(α)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산교육의 경우 입소 後와 수료 前 평균은 84, 89.5로 평균의 차이가 있으며,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유의확률(p)이 0.001 수준이고 유의수준(α)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집중교육 대비 분산교육이 신병 정신전력 교육수준 변화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5. T-test Result of Army Core Value

Division	After Enlistment	Before Education Certificate	P-value
Intensive	83.5	85.5	0.001
Distributed	84	89.5	0.001
P-value	0.085	0.001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MZ 세대 신병들의 정신전력 교육방법에 대해 집중교육과 분산교육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교육방법별 효과분석과 A 집단과 B 집단 신병들을 대상으로 교육방법별 신병들의 정신전력 수준변화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출된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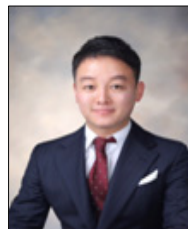
첫째, 전문가들이 판단한 신병 정신전력 교육방법에 대해 계층적 분석기법(AHP)을 통해 분산교육이 집중교육 대비 교육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둘째, 집중교육 및 분산교육의 교육방법별 신병들의 정신전력 수준 변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입소 後 MZ 세대 신병들의 현 정신전력 수준은 국가관, 군인정신, 육군 핵심가치, 안보관 순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입소 後 집중교육 방법을 적용한 집단의 정신전력 수준 변화 분석결과, 입소 後 대비 수료 前이 측정요소별 1%~5.5%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 정신전력 수준변화는 안보관(5.5%), 육군 핵심가치(2%), 군인정신(1.5%), 국가관(1%) 순으로 향상된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입소 後 분산교육 방법을 적용한 집단의 정신전력 수준 변화 분석결과, 입소 後 대비 수료 前이 측정요소별 2.5%~9.5%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 정신전력 수준변화는 안보관(9.5%), 육군 핵심가치(5.5%), 군인정신(4.5%), 국가관(2.5%) 순으로 향상된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MZ 세대 신병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전력 교육방법 적용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준(학력, 시험결과, 집단성적 등)을 적용하여 좀 더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다양한 기준, 교육방법 등을 적용한 추후 연구를 통해 신병 정신전력 교육효과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References

- [1] H. N. Jeon, H. K. Jeong "A Study on the Method of Military Information and Education : Focused on Question and Discussion", *Journal of the Spiritual & Mental Force Enhancement*, Vol.57, pp.53-100, May. 2019.
- [2] Y. G. Lee, "Application of the Five Stages of Creative Education to Military-oriented Education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Journal of the Spiritual & Mental Force Enhancement*, Vol.53, pp.195-239, May. 2018.
- [3] I. K. Kim, "Study on Enhanc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Spiritual and Mental Force Education", *Journal of the Spiritual & Mental Force Enhancement*, Vol.48, pp.51-103, Feb. 2017.
- [4] M. R. Kim, "Development of Mental Education usign Military Media : Focused on Educational Use of Defense Daily and Armed Forces Broadcasting", *Journal of the Spiritual & Mental Force Enhancement*, Vol.45, pp.1-55, Dec. 2014.
- [5] I. J. Lee, "A Study on Military Educational Plan Based on Generation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Spiritual & Mental Force Enhancement*, Vol.50, pp.43-87, Aug. 2017.
- [6] H. B. Kim, "Development Plan of participatory and Experimental Military Spirit Education Program ", *Journal of the Spiritual & Mental Force Enhancement*, Vol.55, pp.189-248, Nov. 2018.
- [7] J. P. Park, "The development plan of military Information and Education in the Age of SNS", *Journal of the Spiritual & Mental Force Enhancement*, Vol.48, pp.167-217, Feb. 2017.
- [8] S. W. Im, "Military Mental Education Program Based on Virtual Reality", *Journal of the Spiritual & Mental Force Enhancement*, Vol.50, pp.89-129, Aug. 2017.
- [9] J. M. Kim, "The Struction of the Moral Strength to War Sentiment from the Perspective of Kurt Lewins Field Theory", *Journal of the Spiritual & Mental Force Enhancement*, Vol.49, pp.1-63, May. 2017.

임 증 원(Jong Won Lim)

[정회원]



- 2012년 8월 : 한국과학기술원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공학석사)
- 2021년 8월 : 한남대학교 산업 공학과(공학박사)
- 2020년 8월 ~ 현재 : 교육사 분석실

<관심분야>

국방 M&S, Optimization, Warfighting Experimentation, 무체계계 분석, 체계분석